

강이야기

2

River & Culture



이 학 명 | 한국생태환경연구원 원장  
우리협회 간섭분과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동자개: 빠가사리로 더 잘 알려진 물고기

학 명 : *Pseudobagrus fulvdraco*

지역 방언: 빠가사리, 등치미, 자개미, 동바가, 황빠가 등

분 류: 메기목 동자개과

자생 수역: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

주 서식장소: 하천 중·하류 진흙, 모래 바닥

번 식 기: 5-7월

크 기: 20센티 내외

독자들 중에는 이 물고기의 사진과 이름을 보고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자개라는 표준어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빠가사리’라는 귀에 익은 방언으로 더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빠가사리라는 말은 이 물고기가 빠가빠각하는 소리를 내는 데서 유래되었다. 동자개는 위험을 느꼈을 때나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가슴지느러미의 관절 부위를 서로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마치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손가락 관절을 눌러 뿌드득하고 소리를 내는 이치와 유사).

이래서 민거나 말거나 재미난 일화도 가지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약탈했던 시절, 왜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물고기가 바로 동자개(빠가사리)였다는 것이다. 낚시에 잡힌 동자개가 지느러미를 곧추 세우며 내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바가바가’ 즉 일본어의 바보라는 의미로 들려 한국에서는 물고

기조차 왜놈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경계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발음으로는 ‘보옥 뽕’으로도 들려 복을 주는 물고기로도 통한다. 전국의 하천을 탐사하다 보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접할 수 있다.

머리는 납작하고 등 뒷부분은 옆으로 납작하다. 네 쌍의 긴 입수염이 있다. 가슴지느러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고 곁과 안에 모두 작은 톱니들이 달려 있다. 등지느러미에도 역센 가시가 있으며 여기에 찔리면 몹시 아프다. 작은 눈은 천진난만한 어린 강아지(동자 개)의 눈망울을 닮아 매우 귀엽다.

육식성으로 어류, 실지렁이, 수서곤충, 갑각류 등을 먹고 산다. 산란기는 5-7월경이다. 진흙 펄에 암컷이 낳은 알을 수컷이 지켜주는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다. 동해안의 일부 하천을 제외한 거의 전 지역에 고루 분포하였지만 지금은 여러 군데 이식되어 동쪽 하천에서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동자개가 서식하던 하천 복원시에는 유속이 완만하고 적당한 수초군락과 하상에 펄이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 맛이 좋아 대표적 양식어종이며 근래에는 중국산 동자개가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 중국산은 주로 체색이 국산보다 더 노란 개체가 많다.

그 날렵한 동작과 늘씬한 자태로 관상어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 새해 복주는 동자개

상감 이학영 / 시인

신 새벽 전설을 담고  
물안개 헤치며  
오는 전령이 있다

이는 여러분께 드리는  
희망의 소리문자다  
복 가운데 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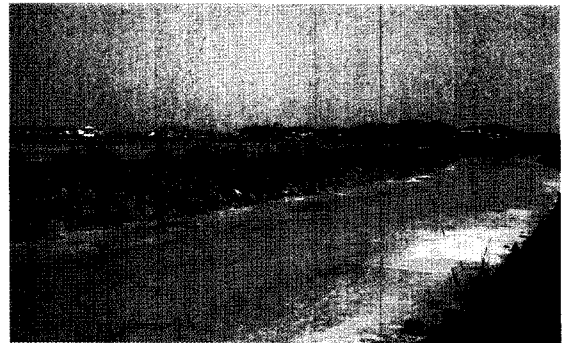
팔자 좋은 촉수를 달고  
복 복(福)  
삶의 기적을 울리며

그리하여 등줄기 곳곳이 펴고  
이 한해 너처럼 숫구치라고

새해가 밝았으니 🌐



〈그림 1〉 동자개  
수질오염과 환경변화에 강하고 육질이 좋아 식재료도 인기가 높다.



〈그림 2〉 동자개가 사식하고 있는 하천 (강화도)  
얼음 속에서 새해를 일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그림 3〉 동자개의 수염  
길고 멋진 8개의 수염과 그 아래 보이는 가슴지느러미에서  
빠가빠가 복복 소리를 낸다.



〈그림 4〉 수조속의 동자개 편대  
날렵한 동자개는 전투기의 모양과 닮아 일부 지방에서는  
아예 '팬텀기'라는 전투적(?) 별칭으로도 부르고 있다.